

연구논문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An Analysis of Time Use of Adults and Influencing Factors on It
—Paid Work, House Work, Child Caring, Leisure—

농촌생활연구소 여성복지연구실
유 소 이 · 최 윤 지

Division of Women's welfare studies,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So-Ye You · Yoon-Ji Choi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amount of time use for paid work, house work, child caring and leisure spent by adults and to explain its influencing factors. Tobit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of time use because the amount of time use was a limited continuous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mount of time spent for paid work per day by adults was found to be 349 min. for men and 185 min. for women. Amount of time spent for house work was found to be 19min. for men and 155 min. for women.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ing was found to be 5min. for men and 40 min. for women. Amount of time spent for leisure was found to be 285 min. for men and 266 min. for women.

2) Time use for paid work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householder,

age, time limit and paid worker for men and householder, time limit and paid worker for women. Time use for house work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 time limit and paid worker for men and householder, age, marital status and paid worker for women. Time use for child caring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resence of kids and marital status for men and house, car, presence of kids, marital status and paid worker for women. Finally, Time use for leisur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ar, time limit and paid worker for men and house, presence of kids, marital status, time limit and paid worker for women.

Key words: time use, paid work, house work, child caring, leisure

1. 서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고정되고 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수면이나 식사 등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한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더 제한된다. 또한 시간은 돈과 같이 저축할 수도 없고, 대체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간의 특성은 시간을 값비싼 희소자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의 경우 시간의 희소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요구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특정활동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간사용의 선택에는 개개인의 태도나 가치가 반영된다. 또한 시간이 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시간을 관리하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사용의 관리는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시간을 여러 행동영역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문숙재, 1994; 한경미, 1991).

이처럼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산업발전이후 더욱 부각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여성의 시간사용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위한 이중적 노동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이 사회적·학문적 관심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사용연구는 주로 가사노동의 능률화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원사용의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가 가사노동의 능률화추구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이나 양식 또는 가계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연구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김외숙·이기춘, 1988; 허경옥·김인숙, 1996).

더 나아가서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비단 가족자원관리 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정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련학문의 연구성과를 적절히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김외숙·조희금·두경자,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개개인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대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획득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발전 이후 시간사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 왔으며(허경옥·김인숙, 1996), 돈처럼 중요한 자원으로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Hendrix, 1984). 따라서 희소자원으로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가정학에서도 1970년대 이후 시간연구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시간을 대표적인 가족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여 주로 효과적인 시간사용과 관리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가족의 효율적인 시간사용이 가정생활의 질향상과 생활양식 및 가족이나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시간관리연구는 주된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 또한 개개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는 인구통계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한경미, 1991; Hendrix, 1984). 특히, 성에 따르는 역할 및 가치관 또는 태도가 시간사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양한 연구에서 알 수 있다(Barnett & Baruch, 1987; Mchale & Huston, 1984; Huber & Spitze, 1983; Kamo, 1988; Ross, 1987; Coverman, 1985; Hochschild, 198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시장노동, 가사노동, 여가시간 등 특정활동에 사용된 시간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사용의 주된 영역인 유급노동, 가사노동, 육아활동 및 여가활동영역에 대한 시간사용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첫째, 유급노동, 가사노동, 육아활동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성인남녀의 시간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각각의 시간사용활동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시간을 자원으로 간주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개개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시간활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들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을 고려할 때 여가 시간활용에 대한 실태와 영향요인을 설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간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간사용

희소자원으로서 시간의 가치가 인식되면서 시간사용은 후기산업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Robinson, 1996; 박명숙·백경임, 1997).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제약과 다른 자원과 달리 절약이나 저축이 불가능하며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Li & Hung, 1997; 문숙재, 1994). 따라서 시간이 사용시간의 분배와 조절에 의해서 만이 통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개개인의 시간관리능력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박명숙·백경임, 1997). 특히, 제한적인 시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개인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활동 중에서 특정 활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Feldman & Homik, 1981; 박명숙·백경임, 1997).

또한 Feldman과 Homik(1981)은 시간사용의 선택과정이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개별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인지된 가치관과의 함수관계로 보고 시간사용에 대한 선택이 개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문숙재(1996)는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먼저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행동을 순서화하여 일정한 시간내에 목표한 작업을 달성하는

것을 효율적인 시간관리자로 규정하였다. 효율적인 시간사용에 따른 결과는 깨끗한 집, 잘 준비된 식사 등의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성취감, 만족 또는 실망 등의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특히, 구체적인 결과는 주로 가정생산활동의 측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어왔다. 그러한 결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료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Bryant & Zick, 1994; Hendrix, 1984).

이러한 시간의 특성과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가정관리학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학, 사회학 등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신가정경제학파의 발전으로 인해 시간자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이루어져 왔는데, 시간의 개념을 경제학적 분석에 도입하여 시장재와 시간의 결합이 가계 또는 가족구성원의 효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생산물(Household Commodities)을 창출함을 주장하였다(Berk, 1980; 허경옥 · 김인숙, 1996).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시간배분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Becker(1965; 1991)를 중심으로 하는 신가정경제학파의 가정생산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베커의 시간배분론은 시간의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여 전통적인 소비모델에 시간제약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후 시간배분에 대한 가정경제학적 접근은 Mincer(1962)와 Gronau(1977)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그 중 Gronau(1977)의 시간배분에 관한 이론적 전개는 주지할 만한데, 가계행동분석의 중요한 모델인 미국 신가정경제학파의 기본적 입장을 시간배분에 적용하였다. 그후에도 시간배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는데 Bryant(1990)에 이르러서는 종합적으로 시간배분에 대한 이론전개가 완성되었다(허경옥 · 김인숙, 1996).

신가정경제학파에 의한 소비자선택이론의 중

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개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가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소비자행동이론에서는 소비자단위인 가계가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함으로써 직접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보는 반면, 가정생산이론에서는 효용이 시간과 소득계약하에서 구입된 시장재화와 서비스에 시간을 결합한 생산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최종생산물의 소비로부터 극대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의숙 · 조희금 · 두경자, 2000). 즉,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배분의 설명은 가족구성원이 시간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 또는 분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Bryant & Zick, 1994). 또한 시간배분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 가사 및 육아노동, 시장노동 등 개별적 활동시간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주어진 24시간 중 한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이 다른 활동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Douthitt, Zick & McCullough, 1990).

특히, 가정경제학적 측면에서 가정생산은 주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자원으로써 활용된다. 따라서 가정생산은 시간계약, 자녀수, 어린 자녀의 존재, 교육, 연령 등 가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가계의 개별특성들 및 주택, 가구, 가전제품, 각종 가구 및 설비 배열 등 가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시장재의 소비는 시장에서 얻는 유급노동에 영향을 받는 소득에 근거하게 되므로, 소득계약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Bryant & Zick, 1994).

우리 나라에서도 196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시간사용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주로 주부들의 시간사용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가사작업의 간소화를 위한 실험연구에 치중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주제를 더욱 세분화하고 정교한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등 커다란 진전을 보여 왔다(김의숙 · 이기춘, 1988).

더 나아가서 가정관리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노동과학 등 여러 영역에서 가정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간사용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사용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erk, 1980; 김의숙·이기춘, 1988).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사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시장노동, 가사노동, 여가시간 중 특정활동 어느 하나에 사용된 시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가계구조와 가계의 증가된 수요 및 가족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주로 설명해 왔다(Douthitt, 1991).

그러나, 특정활동 한 가지에 관한 시간사용연구는 시간배분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물리적 특성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특정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은 다른 활동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Douthitt, Zick & McCullough, 1990).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다양한 활동영역에 대한 시간사용을 동시에 설명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 시간사용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는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시간사용실태 분석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주부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취업주부 및 맞벌이가정 남편의 시간사용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구체적으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합리화 및 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시간관리 및 시장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의 균형화 등의 중요성을 지적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양한 대상과 주제를 가지고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는데, 자녀 및 대학생, 농촌부부나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성의 시간사용구조나 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김의숙·이기춘, 1988; 문숙재, 1996).

문숙재(1991)와 김정희(1993)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8~10시간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홍향숙과 박수경(1994), 한경미(1989) 및 홍성희(1993)의 연구결과에서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대략 3~4시간으로 전체 주부평균의 절반정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회·문화적 시간은 전업주부의 경우 4~5시간, 취업주부의 경우 2~3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시간사용은 주로 가사노동시간과 여가를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기영과 이승미(1994)는 생활주기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전업주부의 생활시간구조가 상이한 반면, 취업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경우는 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사회·문화적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밝혀 각 활동간의 시간배분은 상호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경미(1991)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설명하였는데, 소득수준, 가족수, 시장노동시간, 가족형태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는 막내자녀연령과 수입노동시간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오경희(199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연령, 학력, 소득, 결혼지속연수,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등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문화적 시간은 연령, 소득, 결혼지속연수 등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이기영 등(1996)의 연구에서는 도시근로자 남편의 생활시간을 분류함에 있어서 각각의 활동에 이동시간을 추가한 후, 활동시간을 개인적, 사회적 시간으로 분류하였다. 기혼남성의 경우 장시간의 수입노동시간으로 인해 가족시

간이나 여가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요인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평일 남편의 가족시간은 부인의 취업여부가, 사회·문화적 시간은 연령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환(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기 위해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맞벌이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는데, 맞벌이가정에서는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권력, 남편의 취업시간, 막내자녀연령, 전업주부인 부인을 가진 남편의 경우는 남편자신의 취업시간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현아(1994)는 기혼남성의 경우 수입노동시간은 11시간 43분으로 측정되었고 하루중 반을, 토요일의 경우 1/3정도를 수입노동시간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남성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평일에 3시간 미만, 토요일에 5시간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20년대부터 시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1960년대 Gary Becker를 비롯한 신가정경제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이들은 비시장경제부문인 가정행동 및 의사결정 등의 분야에 시장경제이론을 접목하여 시간을 경제적 가치를 가진 희소자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간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Zick과 McCullough(1991)는 1977-1978년과 1987-1988년의 시간사용을 비교하였는데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보다 주부의 시간사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온 우리 나라의 연구와는 달리 미국의 연구는 남편의 가사 및 육아노동시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Zick과 McCullough(1991)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 반면, 남편의 경우는 하루 약 30분정도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Sanik(1981, 1990)의 연구에서도 이 같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1967년에 비해 1986년 하루 약 4시간 정도

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상태가 빈번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가사 및 육아시간은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적다고 설명되고 있다(Shelton, 1990; Maret & Finlay, 1984). 한편, 부인의 근로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iller & Philliber, 1986; Kamo, 1988; Maret & Finlay, 1984). 반면, 남편의 근로시간은 자신의 가사 및 육아노동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되고 있다(Bergen, 1990; Coverman, 1985; Coverman & Sheley, 1986). 또한 Farkas(1976)와 Gronau(1977)의 연구에서 임금률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의 경우도 다양한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Maret & Finlay, 1984; Coverman & Sheley, 1986; Riley, 1987).

그밖에 Barnett과 Baruch(1987), Mchale과 Huston(1984)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verman(1985)의 가사노동시간 연구에서 남편연령은 부적인 효과, 자녀의 수 및 어린자녀의 존재는 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Coverman과 Sheley(1986)의 연구에서는 어린자녀의 존재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육아노동시간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여가활동시간을 설명하는 연구는 대부분 가사노동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이 여가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인구적 요인과 가족상황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Nickols와 Abdel-Ghany(1983)는 부인과 남편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임을 파악하여 한가지 특정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다른 활동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통계청이 우리 나라 국민의 시간사용형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에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된 자료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평일의 시간사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전국 17,000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46,109명 중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 915명, 남성이 782명이었으며, 조사 항목으로는 주택종류, 입주형태 및 미취학아동 보유형태 등의 가구관련사항,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개별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느낌 등의 개인관련사항 및 시간활용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다. 가구 및 개인관련 사항은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시간사용은 시간일지(time-diary)법을 사용하여 48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언제 몇 분 동안 했는지를 10분 간격으로 기입하게 하였다.

2.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의 시간사용실태와 각각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급노동, 육아, 가사노동 및 여가에 하루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유급노동, 육아,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은 10분 간격으로 기재된 시간일지를 합산하여 하루에 몇 분인 가로 측정하였다. 유급노동시간에는 고용된 일과 자영업에 종사한 시간

을, 육아시간에는 신체적 돌보기,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숙제 및 공부 봐주기, 학교와 관련된 일 및 기타 자녀와 관련하여 사용한 시간을 포함하였다. 가사노동시간에는 음식준비 및 관리,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및 기타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에는 교제 및 종교활동, 대중매체이용, 외국어나 자격증 등을 위한 학습시간, 문화 및 스포츠 관련 시간, 취미활동 및 그 밖의 여가시간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에는 주택소유여부, 주거전용면적, 자동차소유여부 등의 가구자산요인, 어린 자녀유무, 가구주여부, 연령, 교육수준, 결혼 등의 인구통계 요인, 시간부족여부, 유급노동종사여부 등의 경제활동 관련요인을 포함하였다¹⁾. 주택과 자동차는 소유여부로 측정하여 소유한 경우를 1로 하였다. 주거면적은 평수를, 어린 자녀와 가구주는 각각 가구에 어린 자녀가 존재할 경우와 가구주인 경우를 1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인 경우를, 결혼은 기혼자인 경우를 1로 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시간부족여부와 유급노동종사여부는 각각에 대하여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1로 하여 측정하였다.

3. 분석모델 및 방법

각각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추정모델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시간사용}_i = & \beta_0 + \beta_1 \text{주택소유} + \beta_2 \text{주거면적} + \\ & \beta_3 \text{자동차소유} + \beta_4 \text{어린자녀} \\ & + \beta_5 \text{가구주} + \beta_6 \text{연령} + \beta_7 \text{교육수준} \\ & + \beta_8 \text{결혼} + \beta_9 \text{시간부족} \end{aligned}$$

1)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 중 가구자산요인은 소득을 설명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가구주 여부는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여성이 가구주가 되는 단독가구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 \beta_{10} \text{유급노동} + \varepsilon_i,$$

$i = \text{유급노동, 육아, 가사노동, 여가.}$

있다(Maddala, 1992).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위에서 제시한 모델을 추정하기 위하여 LIMDEP(7.0)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Tobit 모델을 사용하였다(Greene, 1995). 종속변수가 제한적인 연속변수일 경우, 예를 들면, 본 연구와 같이 개인이 특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또는 몇 분 등으로 제한적이며 변수의 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경우는 Tobit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Griffiths, Hill & Judge, 1993). 즉, 종속변수(y^*)가 0보다 크면 행위를 관찰할 수 있으나 0보다 작으면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들의 기본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중 여성은 915명, 남성은 782명이 포함되었다. 연령에 있어서는 여성이 40세, 남성이 41세로 나타났으며, 주거전용면적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각각 19.3평과 18.8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택(50%)이나 자동차(50%) 소유, 어린 자녀존재여부(22%) 및 시간부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여성N=915, 남성N=782)

변수	정의	여성	남성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령	(만)세	39.9(15.91)	40.7(14.48)
주거전용면적	평수	19.3(9.52)	18.8(9.51)
변수	정의	여성	남성
		빈도수(%)	빈도수(%)
주택	주택소유=1	1=458(50.1) 0=457(49.9)	1=373(47.7) 0=409(52.3)
자동차	자동차소유=1	1=448(49.0) 0=467(51.0)	1=401(51.3) 0=381(48.7)
어린자녀	가구내 미취학아동 존재=1	1=201(22.0) 0=714(78.0)	1=170(21.7) 0=612(78.3)
가구주	가구주=1	1=158(17.3) 0=757(82.7)	1=571(73.0) 0=211(27.0)
교육수준	대졸이상=1	1=273(29.8) 0=642(70.2)	1=344(44.0) 0=438(56.0)
결혼	기혼자=1	1=575(62.8) 0=340(37.2)	1=536(68.5) 0=246(31.5)
시간부족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1	1=657(71.8) 0=258(28.2)	1=565(72.3) 0=217(27.7)
유급노동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1	1=449(49.1) 0=466(50.9)	1=583(74.6) 0=199(25.4)

족여부(72%)는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 결혼 여부 및 유급노동종사 여부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우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73%인 반면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1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대졸이상은 44%, 여성의 경우는 30%로 나타났다. 또한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남성은 75%인데 반해 여성은 49%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개별가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도가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반면, 육아와 가사노동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육아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 하루에 40분을, 남성은 5분을 사용하며, 가사노동은 여성이 155분(약 2.6시간), 남성이 19분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선행연구에서 측정되어 온 시간보다 다소 적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는 여성의 책임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자

<표 2> 시간사용 실태

(여성N=915, 남성N=782)

시간사용	정의	여성	남성
		분/하루(표준편차)	분/하루(표준편차)
유급노동	고용된 일과 자영업에 종사한 시간	184.84(242.84)	349.05(252.12)
육아	신체적 돌보기,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숙제 및 공부 주기, 학교와 관련된 일 및 기타 자녀와 관련하여 사용한 시간	40.04(84.65)	5.58(24.12)
가사노동	음식준비 및 관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및 기타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	155.14(136.40)	18.71(44.42)
여가활동	교제 및 종교활동, 대중매체이용, 외국어나 자격증 등을 한 학습시간, 문화 및 스포츠 관련 시간, 취미활동 및 그 밖의 여가시간	266.33(243.23)	285.19(280.50)

2. 시간사용실태

하루 중 여성과 남성의 유급노동, 육아, 가사노동 및 여가에 사용한 시간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하루에 349분(약 5.8시간), 여성은 185분(약 3.1시간)으로 남성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은 기혼남성의 수입노동 시간을 측정한 이현아(1994)의 연구결과(11시간 43분)의 절반가량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조사대상의 약 25%

녀양육에 있어서도 기혼일 경우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경우 이중적 역할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여가활동시간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며, 여성은 하루에 266분(약 4.4시간)을, 남성은 285분(약 4.8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여가시간은 이현아(1994)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성의 사회문화적 시간(3시간 미만)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여가시간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 유급노동시간 결정요인 비교분석

(여성N=915, 남성N=782)

변 수	여성			남성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주택소유	1.70	0.065	0.59	-4.41	-0.253	-4.11
주거전용면적	-0.60	-0.374	-0.21	0.27	0.265	0.25
자동차소유	-5.54	-0.217	-1.91	2.86	0.173	2.67
어린자녀	-17.35	-0.579	-5.99	19.60	0.990	18.29
가주주	75.87*	2.550	26.20	70.32**	2.713	65.62
연령	-1.33	-1.273	-0.46	-1.87*	-2.162	-1.75
교육수준	-3.10	-0.113	-1.07	-42.06**	-2.550	-39.25
결혼	-43.95	-1.626	-15.18	-18.83	-0.753	-17.57
시간부족	102.98**	3.097	35.56	67.09**	3.532	62.61
유급노동	841.58**	19.788	290.63	695.13**	23.534	648.73
상수(intercept)	-498.59**	-7.464		-246.95**	-5.756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2856.087			-3867.902		

* p < .05, ** p < .01

3. 유급노동참여시간 결정요인분석

유급노동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시간부족정도, 유급노동종사여부가 여성과 남성에서 있어서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일 경우, 시간부족정도가 심할수록,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가구주일 경우 가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급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표 4>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 비교분석

(여성N=915, 남성N=782)

변 수	여성			남성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주택소유	10.65	1.204	9.62	-0.39	-0.050	-0.45
주거전용면적	-0.62	-1.246	-0.56	-0.43	-0.975	-0.16
자동차소유	-1.05	-0.120	-0.95	8.36	1.108	3.12
어린자녀	-7.23	-0.738	-6.52	-6.45	-0.699	-2.40
가주주	30.88**	2.842	27.89	15.56	1.542	5.80
연령	2.01**	6.813	1.82	0.94**	3.012	0.35
교육수준	3.03	0.321	2.73	4.35	0.579	1.62
결혼	142.48**	16.074	128.67	-18.24	-1.176	-6.80
시간부족	18.07	1.897	16.32	-18.79*	-2.236	-7.00
유급노동	-104.79**	-12.294	-94.63	-28.02**	-3.227	-10.45
상수(intercept)	17.77	0.985		-24.70	-1.586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5111.089			-2116.907		

* p < .05, ** p < .01

경우보다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유급노동에 사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 교육수준과 연령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대졸이상일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분석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유급노동여부가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반면, 여성의 경우 가구주일 경우, 결혼한 사람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심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경우 결혼이 가사노동 증가를 가져오는 것임을 알 수 있

며, 특히, 여성이 가구주일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에 비해 가구주로서의 여성은 유급노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이 대체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시장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가구주여부(가족형태), 연령, 결혼, 유급노동 등의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한경미, 1991; 오경희, 1995). 한편, 남성의 가사노동의 영향요인인 시간부족이나 유급노동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이기영 등, 1996; 조미환, 1996).

또한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다른 형태의 노동시간에 대해 이차적인 시간활용영역임을 시간부족변수로부터 알 수 있는데, 기타 다른 활동으로 인해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가 심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표 5> 여성과 남성의 육아시간 결정요인 비교분석

(여성N=915, 남성N=782)

변 수	여성			남성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주택소유	-2.40	-0.228	-0.76	2.14	0.159	0.13
주거전용면적	-2.35**	-3.666	-0.75	-0.94	-1.056	-0.06
자동차소유	44.28**	4.243	14.04	18.19	1.345	1.14
어린자녀	179.83**	17.100	57.04	104.56**	6.823	6.56
가구주	23.22	1.669	7.36	6.97	0.332	0.44
연령	0.23	0.573	0.07	0.11	0.162	0.007
교육수준	7.56	0.665	2.40	6.28	0.477	0.39
결혼	122.01**	9.667	38.70	68.55*	2.544	4.30
시간부족	21.97	1.931	7.00	-17.16	-1.121	-1.08
유급노동	-64.52**	-6.360	-20.47	-9.92	-0.517	-0.62
상수(intercept)	-141.25**	-5.590		-188.85**	-4.711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2333.508			-6608.236		

* p < .05, ** p < .01

5. 육아시간 결정요인분석

육아시간은 여성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자동차 소유여부, 어린 자녀유무, 결혼, 유급노동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어린 자녀 유무와 결혼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5). 결혼과 어린 자녀 유무는 여성과 남성 모두 공통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에 어린 자녀가 존재할수록, 기혼자일수록 육아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자녀출산이 여성과

경우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육아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육아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이 상충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6. 여가시간 결정요인분석

여가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여성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어린 자녀유무, 결혼, 시간부족정도, 유급노동이며, 남성의 경우 자

<표 6> 여성과 남성의 여가시간 결정요인 비교분석

(여성N=915, 남성N=782)

변 수	여성			남성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주택소유	-30.45	-1.714	-26.60	4.69	0.213	4.05
주거전용면적	1.93*	1.952	1.68	2.42	1.943	2.09
자동차소유	7.02	0.400	6.14	-43.81*	-2.054	-37.79
어린자녀	-41.58*	-2.100	-36.33	-43.39	-1.697	-37.42
가주주	12.14	0.552	10.61	6.32	0.215	5.45
연령	0.52	0.888	0.46	0.96	1.046	0.83
교육수준	36.02	1.911	31.47	31.58	1.500	27.24
결혼	-37.95*	-2.151	-33.16	-4.13	-0.133	-3.56
시간부족	-70.65**	-3.681	-61.73	-80.28**	-3.338	-69.23
유급노동	-125.70**	-7.352	-109.82	-201.09**	-7.998	-173.43
상수(intercept)	349.90**	9.762		419.11**	9.468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6164.702			-5334.479		

* p < .05, ** p < .01

남성 모두의 육아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주거전용면적이 클수록,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육아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생활주기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용 주거면적이 큰 경우 대부분 자녀가 성장한 시기이거나, 여성이 자녀의 출산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한다면 자녀출생 이전기 또는 미혼인 경우로 육아부담이 없거나 적은

자동차소유, 시간부족, 유급노동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 중 시간부족정도와 유급노동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가 심할수록,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장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클수록, 가정에 어린 자녀가 없을 경우나 미

혼일 경우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상당한 시간의 육아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을 많이 즐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 자녀와 유급노동여부 및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주거전용면적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한경미, 1991; 오경희, 1995).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제시한 이기영 등(199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의 시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하루에 349분, 여성은 185분으로 남성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와 가사노동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하루에 40분을, 남성은 5분을 사용하며, 가사노동은 여성이 155분, 남성이 19분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시간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며, 여성은 하루에 266분을, 남성은 285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노동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시간부족정도, 유급노동종사여부가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일 경우, 시간부족정도가 심할수록,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유급노동여부가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

우 가구주일수록, 결혼한 사람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자동차소유여부, 어린 자녀유무, 결혼, 유급노동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어린 자녀유무와 결혼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어린 자녀유무, 결혼, 시간부족정도, 유급노동이며, 남성의 경우 자동차소유, 시간부족, 유급노동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 및 육아에 사용되는 시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가에 대한 성인남녀의 시간배분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에 투입되는 시간량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기여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가정내에서 남성의 기여도에 대한 시간배분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이중적 역할부담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개인 및 집단의 시간배분에 의한 것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견된 다양한 시간배분 형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간사용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사노동 및 육아에 있어서 취업주부의 시간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부족을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족내에서의 대책과 함께 사회적인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에 남성의 시간사용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취

업여성의 증대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가사노동 및 육아에 대한 남녀의 역할분담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인이 취업여성인 경우 남성의 가사노동 및 육아에 대한 역할기여가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남성이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의 증대를 통해 가족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해하여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와 연계하여 후속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몇 가지 측면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시간사용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개인별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시간사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집단별 시간사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에 따른 시간사용형태의 차이점이나 결정요인 파악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수행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사용실태와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활시간조사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여 일반 여성의 가사노동이나 여성 농업인의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 등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미래에 시행되는 5일 근무제나 자녀의 5일 수업에 따라 효과적으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외숙·이기춘(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171-182.
- 김외숙, 조희경, 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 4, 37-51.
-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2, 285-302
- 문숙재(1994). 가정관리학. 서울: 학지사.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서울: 학지사.
- 박명숙·백경임(1997).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6), 173-189.
- 오경희 (1995). 청주시 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 3, 74-87.
- 이기영, 이승미(1994).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 (3), 11-26.
- 이기영, 송혜림, 이승미, 민순선, 서지원(1996).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1, 97-112.
-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장시간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 2, 1-13.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허경옥, 김인숙(1996).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연구: 가정생산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81-195.

- 홍성희(1993).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2, 55-68.
- 홍향숙, 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 2, 49-60.
- Barnett, R. C., & Baruch, G.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rev. ed.),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Bergen, E. (1990).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domestic labor: An investigation of husbands' particip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 of Wisconsin. NSFH working paper, 36, CDE, Univ. of Wisconsin-Madison
- Berk, R. A. (1980). The New Home Economics: An agenda for sociological research. In S. F. Berk (ed). *Woman and household labor*. Beverly Hills, CA: Sage Pub.
- Bryant, W. K.(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 Press.
- Bryant, W. K., & Zick, C. D. (1994). The economics of housepousery: An Essay on household work.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5, 2, 137-168.
-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34.
- Coverman, S., & Sheley, J. F. (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13-422.
- Douthitt, R. A., Zick, C. D., & McCullough, J.(1990). The role of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in explaining time-use of single and married mothe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23-52.
- Douthitt, R.A.(1991). Children's time use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Does household organization matt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0(1), 40-51.
- Farkas, G. (1976). Education, wage rates, and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husband and w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473-484.
- Feldman, L. P. & Hornick, J.(1981). The use of time: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407-419.
- Greene, W. H.(1995). LIMDEP (7.0): User's manual. New York: Econometric Software, Inc.
- Griffiths, W. E., Hill, R. C. & Judge, G. G.(1993). *Learning and practicing econometrics*. New York: John Weiley & Sons, Inc.
- Gronau, R. (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1099-1023.
- Hendrix P.E.(1984).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time use: Proposed measures and preliminary evidenc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35-40.
- Hiller, D. V., & Philliber, W. W. (1986). The division of labor in contemporary marriage: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performance, *Social Problems*, 33, 191-201.
- Hochschild, A.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 Huber, J., & Spitze, G. (1983). Sex stratification: Children, housework, and jobs. 75-77. Academic press.
- Kamo, Y. (1988).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 177-200.
- Li, W. & Hung, K.(1997). Consumption of discretionary time: An exploratory stud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4, 542-550.
- Maddala, G. S.(1992).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2nd edi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Maret, E., & Finlay, B. (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57-364.
- McHale, S. M., & Huston, T. L.(1984). Men and women as parents: Sex role orientations, employment, and parental roles with infants. *Child Development*, 55, 1349-1361.
- Mincer, J.(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H. G. Lewis, ed., Univ.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Conference Series No. 14.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Nickols, S. Y., & Abdel-Ghany, M. (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2, 189-198.
- Riley, D. (1987). Father involvement with six years old: Correlates differ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and area of childrearing involvement.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altimore.
- Robinson, J.P.(1996). Time, housework and the rest of lif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 213-230.
- Ross, C. E. (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816-833.
- Sanik, M. M. (1990). Parents' time use: A 1967-1986 comparison. *Lifestyles: Family and Home Economics Issues*,11, 3, 299-316.
- Shelton, B. A. (1990).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1, 115-135.
- Zick, C. D. & McCullough, J. M. (1991). Trends in married couples' time: Evidence from 1977-1978 to 1987-1988. *Sex Roles*, 24, 459-487.